

노인의 연령 및 주거유형별 주택내 각 실의 불편사항

The Inconvenient Details in Houses Pointed out by the Elderly

이 지 숙*
Rhee, Jisook

Abstract

By 2019, Korea is expected to be an aged society, age group of 65 and older being over 14% of the total population, considering their rapid increase today. Also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structure are accelerated by a low birth rate and long life span. This study was intended to find out the inconvenient details in houses pointed out by the elderly. This survey was taken by trained interviewers from the people of ages 65 and older living in Daejeon city.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from 583 appropriate data out of 624 questionnaires using [SPSS PC+ 10.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lderly were put to inconvenience noises in room, old facility in living room and outmoded facility in kitchen and bathroom in detached house. And they were put to inconvenience the size of room, living room and bathroom and old-fashioned facility in kitchen in apartment. The stairway and bathroom in detached house and balcony, elevator and bathroom in apartment were pointed out dangerous spaces in house.

Keywords : elderly house, apartment, detached house, inconvenient details

주요어 : 노인주거, 아파트, 단독주택, 불편사항

I. 서론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노인 7.2%/어린이 21.1% (2001년), 노인 10.7%/어린이 17.2% (2010년), 노인 23.1%/어린이 12.4%(2030년), 노인 34.3%/어린이 10.5%(2050년)로 예측되어 14세 이하 어린이에 비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¹⁾.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수명은 1981년에 62.3세이었던 것이 2001년에 72.8세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77.5세, 2050년에는 80.0세로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자의 평균수명은 1981년에 70.5세이었던 것이 2001년에 80.0세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84.1세, 2050년에는 86.2세로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1981년에 비하여 2050년에 남자는 18년, 여자는 16년을 더 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²⁾.

노인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앉고 일어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식사하기, 집안 내 걸기, 목욕하기와 같은 일상생활 동작능력에³⁾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즉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장애 출현율도 나이가 들어가

면서 장애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 출현율은 60-64세의 남자에게서 9.98%, 65-69세의 남자에게서 12.79%, 70세 이상의 남자에게서 16.77%로 나타났고, 60-64세 여자에게서 5.45%, 65-69세의 여자에게서 7.19%, 70세 이상의 여자에게서 10.63%였다⁴⁾.

노인의 주택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과 거주행태 조사, 계획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연구(김석준·이득구, 2005; 윤영선·변혜령, 2005; 이진혁·임창복, 2005 등)가 이뤄져 왔으며, 여가시설의 운영실태와 물리적 환경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박영철·박재승, 2001; 백문현, 2001; 김창국·김수인, 1993 등), 색채 및 온열환경 등에 대한 연구(정준수·임환준·이현희·박용환, 2003; 홍원화·원안나, 2001; 김혜정, 1995 등) 등이 있으며, 외국시설의 물리적 현황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연구(문창호, 2004; 노지화, 2005; 최정신, 2003 등)가 있다. 한편, 일반주택에 대한 연구들은 규모 및 시설 기준과 선호하는 주거성향 및 태도(이지숙, 2004; 최정신, 2004; 김행신·이영호, 1998; 장영희·이문보, 2001 등), 3세대 동거를 위한 태도조사 및 3세대 동거 주거유형(이동숙·윤충렬, 2003; 강

1) 통계청, 2004 고령자 통계, pp.6-7

2) 통계청, 전제서, p.10

3) 통계청, 전제서, p.32

4) 통계청, 전제서, p.34

*군산대 주거및 실내계획전공 전임강사, 이학박사

혜원·김인희, 2002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2004)의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반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주주택에 대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장된 노인기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령 및 주거유형에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각 실의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하여 느끼는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희망거주환경 및 현주택에의 불만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들이 선호하는 거주지 환경과 주택 내의 계획이나 시설 등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장래 살고 싶은 주택으로 조사대상자 중 77.2%는 장래 자기 집을 지적하였다. 장래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자노인 85.3%, 여자노인 71.5%로 나타나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자기 집 13.8%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60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대상노인의 59.7%는 주거이동 없이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외국의 경우 노인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⁶⁾ 기존의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경우(Aging in Society)가 약 8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일본도 초기에는 실버타운을 외진 곳에 지었으나, 현재 일본의 실버타운 250여 곳 중 대다수가 도심에서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소외감을 극복하지 못하여 방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도심에서 가까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연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들 중 86%가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으며, 72% 이상의 노인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인하여 식사, 외출, 용변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겪고 있

다⁸⁾. 또한 재택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낮으면, 주거규모가 좁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 안전사고의 확률이 높아 노인들의 주택공간에 대한 개조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⁹⁾.

장래노인인구를 포함한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현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04로 중간 점수 3점을 겨우 넘는 수준이고, 안전성 관련항목과 일부 행동 용이성에 관련된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항목들은 ‘육실바닥에서의 동작’, ‘수납공간의 사용’, ‘문이 안에서 잠긴 경우 비상대책 상태’, ‘집안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경우의 사용 정도’로 ‘보통’ 이하로 점수가 낮았다¹⁰⁾.

5개국 노인의 생활과 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일본 총무청 정관 관방고령화 사회대책실, 1997)¹¹⁾ 응답자의 56%가 현 주택의 구조나 설비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고성룡(1990)의 연구에서는 단위주호 내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들을 조사한 결과, 현관부분의 출입 32.6%, 화장실 관련 이용불편 29.5%, 주방의 불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또한 수리 및 개조된 호주 주택에 대한 조사¹³⁾에서 욕실 및 화장실 설비와 계단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의 개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서 기존 주택의 욕실, 화장실, 계단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이며, 본 연구에서 노인의 범위는 노인복지법과 국민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인구¹⁴⁾에 한정한다.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해서 자기 기입식으로 답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문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련된 면접 조사원이 각 구별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

5) 통계청, 전게서, p.19
 6) 최성재(200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9호 pp.29-38
 7) 이진혁, 임창복(2005),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동향과 건축 계획적 제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 3호, pp.14-15

8) 황영이(1999), 노인을 위한 일본 주거환경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태일(1998), 주택내에서의 고령자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pp.3-12
 10) 신경주·최문선·장상욱(2005), 평생주택개념 도입을 위한 중·노년층 거주주택의 실태와 만족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2권2호, p89
 11) 최성재(2002), 한국의 노인주거 서비스 정책의 과거, 현재 및 미래, 국제 학술 심포지움 주제발표 자료. 재인용
 12) 이진혁·임창복(2005), 도시형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동향과 건축 계획적 제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3호, p.15
 13) 이영실·이상해(2002), 호주 재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권 1호, p.52
 14)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인자,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노인은 60세부터로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은 65세 이상인자로 정의되어 있다.(2004고령자 통계. 통계청 p.2)

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였다<표 1>. 우선, 노인복지회관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5개의 노인복지회관 중 면접조사를 허락한 4개 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였다. 또 노인정을 선정할 때 조사대상이 경제적 계층별로 고르게 표집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택가격¹⁵⁾ 및 인근환경과 주변인식 등을 토대로 조사지역을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표 1. 조사대상 노인정 및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중구	단독주택	태평동, 산성동, 선화동	
		아파트	오류동s, 태평동sa, pd, 문화동sp, s, 목동h, 산성동 w	
	서구	단독주택	탄방동, 둔산동, 괴정동, 도마동, 삼천동, 갈마동, 월평동, 만년동	
		아파트	둔산동sj, hm, hn, cr, mr, wh, sm, 월평동nr, jd, 삼천동sd, g, p, c, d, 탄방동 hg, sa, 정림동 b, 관저동 wa, 가수원동 kr, 갈마동 k, 가장동nr	
	동구	단독주택	가양동, 가양1동, 가양2동, 성남2동, 천동, 용운동, 효동, 자양동, 용전동, 산성동, 합성동, 관암동, 대신동	
		아파트	천동c, jk, 용전동h, db, sd, hs, 자양동d, 관암동jk, 가양동o, 가양1동hy, 가양2동 dp, ds, sd, 삼성동 hb	
	유성구	단독주택	노은동, 구암동, 신성동, 진민동, 죽동, 하기동, 대정동, 상대동, 학하동, 궁동, 어은동, 관평동	
		아파트	구암동sj, 노은동ym, sm, dw, 도룡동 h, 송강동 sk, 신성동lk, hw, hn, wj, dd, 어은동 hp, 자운동ky, hk, 장대동yw, 진민동es, sj, 지족동 h,	
	대덕구	단독주택	송촌동 선비마을2단지, 선비마을3단지, 와동, 중리동, 상서동, 연축동, 진대동, 석봉동, 오정동, 덕암동	
		아파트	법동sj, sm, br, si, jr, 대화동ks, 덕암동ks, 법1동yw, 와동h, di, 오정동sd, 연축동yc, h, 상서동ds, sy, 신대동sd, 신탄진sb, 송촌동sb,	
	노인복지회관		대덕구, 서구, 동구, 유성구	

*: 영어 소문자는 아파트 명칭을 영어로 간략하게 표기한 것임

설문내용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아서, 문항 수와 설문내용을 조정한 후 본 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역, 연령, 성, 학력, 수입원, 전직 등의 사회 인구학적 사항 및 각 실의 불편사항에 대한 반응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공간은 개인공간, 공동공간, 작업공간, 생리위생공간으로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과 거실, 부엌과 욕실로 정하고 이들 공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사시기는 사전조사를 거쳐 예비조사는 2002년 9월 24-10월 9일까지 6일간 60부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02년 11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지는 회수한 설문지 624부 중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83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PC10.0 통계프로그램에 의하여 단순 통계 분석하였다.

IV.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중구 45(7.7%), 서구 146(25.0%), 동구 154(26.4%), 유성구 161 (27.6%), 대덕구 77(13.2%)로 나타났고, 중구의 노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된 것은 그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면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69세 20.4%, 70-74세 34.1%, 75-79세 26.9%, 80세 이상 18.5%로, 70-79세가 총 61.0% 표집되었고, 평균연령은 72.18세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비(性比)는 남자 48.7%, 여 51.3% 로 나타났다<표 2>.

표 2.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역과 연령 및 성별 단위: 빈도, %

조사 지역	중구	서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계
		45	146	154	161	77
	7.7	25.0	26.4	27.6	13.2	100.0
연령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계	평균연령
	119	199	157	108	583	72.18세
	20.4	34.1	26.9	18.5	100.0	
성별	남		여		계	
	283	298	581			
	48.7	51.3	100.0			

무응답 제외

조사대상자의 전직 및 학력, 수입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65-69세 조사 대상자의 전직은 전문기술직·일반사무직·행정관리직 38.3%, 무직 21.5%의 순서로 나타났고, 70-74세의 전직은 전문기술직·일반사무직·행정관리직 46.9%, 기타 19.8%로, 75-79세의 전직은 전문기술직·일반사무직·행정관리직 41.6%, 기타 33.1%로, 80세 이상 응답자의 전직은 기타 41.0%, 전문기술직·일반사무직·행정관리직 29.0%로 나타났다. 전직 중 기타항목은 농업이나 수산업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전직은 전문기술직·일반사무직·행정관리직이 40.5%로 많았으며, 연령계층별로 70-74세, 75-79세, 65-69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65-69세의 학력은 중졸 이상 46.2%, 초졸 32.5%로 나타났고, 70-74세의 학력은 중졸이상 43.9%, 초졸 35.4%로, 75-79세의 학력은 초졸 39.1%, 무학 32.1%로, 80세 이상의 학력은 무학 47.6%, 초졸 31.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중졸 이상 36.1%, 초졸 35.1%로, 초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사대상자가 71.2%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낮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65-69세와 70-74세의 조사 대상자들은 중졸이상 학력이 각각 4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조사 대상자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수입원을 살펴보면, 65-69세의 수입원은 자녀 47.9%, 저축·해약금 21.4%, 연금 19.7%의 순으로 나타났고, 70-74세의 수입원은 자녀 62.6%, 연금

15) 자료 : <http://www.r114.co.kr/> 2002년 10월 기준 (행정수도이전 발표 이전의 가격)

표 3. 조사대상자의 전직, 학력, 수입원, 월평균 수입
단위: 빈도, %

항목		연령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전 직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근로직	22 20.6	35 18.2	25 16.2	18 18.0	100 18.1
	전문기술직, 일반사무직, 행정관리직	41 38.3	90 46.9	64 41.6	29 29.0	224 40.5
	무직	23 21.5	29 15.1	14 9.1	12 12.0	78 14.1
	기타	21 19.6	38 19.8	51 33.1	41 41.0	151 27.3
계		107 100.0	192 100.0	154 100.0	100 100.0	553 100.0
학 력	무학	25 21.4	41 20.7	50 32.1	50 47.6	166 28.8
	초등학교 졸업	38 32.5	70 35.4	61 39.1	33 31.4	202 35.1
	중학교 졸업 이상	54 46.2	87 43.9	45 28.8	22 21.0	208 36.1
계		117 100.0	198 100.0	156 100.0	105 100.0	576 100.0
수 입 원	일에 의한 수입	3 2.6	2 1.0	2 1.3	1 .9	8 1.4
	연금	23 19.7	36 18.2	12 7.6	7 6.5	78 13.4
	저축,해약금	25 21.4	27 13.6	29 18.5	18 16.7	99 17.1
	이자,배당금	3 2.6	1 .5	1 .6	- -	5 .9
	집세,지대	3 2.6	5 2.5	6 3.8	2 1.9	16 2.8
	자녀	56 47.9	124 62.6	105 66.9	79 73.1	364 62.8
	생활보호, 복지수당	- -	3 1.5	2 1.3	1 .9	6 1.0
	기타	4 3.4	- -	- -	- -	4 .7
계		117 100.0	198 100.0	157 100.0	108 100.0	580 100.0
월 평 균 수 입	50만원 미만	63 59.4	134 75.7	107 77.0	76 90.5	380 75.1
	50-100만원 미만	19 17.9	20 11.3	26 18.7	8 9.5	73 14.4
	100만원 이상	24 22.6	23 13.0	6 4.3	- -	53 10.5
계		106 100.0	177 100.0	139 100.0	84 100.0	506 100.0

무응답 제외

18.2%, 저축·해약금 13.6%이고, 75-79세의 수입원은 자녀 66.9%, 저축·해약금 18.5%로, 80세 이상의 수입원은 자녀 73.1%, 저축·해약금 16.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수입원은 자녀 62.8%로 가장 많았고, 수입원으로 자녀를 지정한 비율은 연령이 높은 조사대상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월평균 수입

은 65-69세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 59.4%로 나타났다고, 70-74세의 월평균수입은 50만원 미만 75.7%로, 75-79세의 월평균수입은 50만원 미만 77.0%로, 80세 이상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 90.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0만원 미만 7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100만원 14.4%, 100만원 이상 1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으로 50만원 미만을 지정한 비율은 연령이 높은 조사대상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V. 연령별 각 실에 대한 불편사항

주택 내 각 실에서 불편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표 4>, 65-69세의 응답자 중 28.8%가 불편한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0-74세의 응답자 중 34.7%가, 75-79세의 응답자 중 32.5%가, 80세 이상의 응답자 중 33.6%가 불편한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32.7%가 불편한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연령별 주택 내 불편여부 단위: 빈도, %

항목	연령				계
	65-69세 (N=118)	70-74세 (N=199)	75-79세 (N=157)	80세 이상 (N=107)	
불편함	34 28.8	69 34.7	51 32.5	36 33.6	190 32.7

무응답 제외

1. 방과 거실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65-69세는 방의 난방상태 31.3%, 규모 25.0%, 개수 25.0%의 순으로 불편하다고 지적하였고, 70-74세는 방의 규모 35.7%, 난방 14.3%, 노후시설 14.3%, 소음 14.3%를 불편하다고 지적하였고, 75-79세는 규모 37.0%, 소음 25.9%의 순으로 80세 이상은 규모 22.7%, 소음 22.7%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방의 규모에 대한 지적이 31.2%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음 20.4%, 난방 16.1%에 대하여 지적하였다<표 5>. 특히 방에 대하여 규모를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노인들이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특히 자기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노인들은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잘 버리지 못하여 수납해야 하는 물품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거실의 어떤 사항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65-69세는 거실의 규모 33.3%, 노후시설 26.7%을 불편하다고 하였고, 70-74세는 규모 39.3%, 노후시설 25.0%을, 75-79세는 규모33.3%, 노후시설27.8%의 순으로, 80세 이상은 규모38.5%, 난방 38.5%, 노후시설 15.4%의 순으로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36.5%가 거실의 규모가 불편하다고 하였고, 24.3%는 거실의 노후시설이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표 6>. 한편, 거실은 1인 이상의 가구원과 짧지 않은 시간동안 머무는 곳이므로 규

표 5. 연령별 방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연령 불편사항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노후시설	-	4 14.3	3 11.1	3 13.6	10 10.8
규모	4 25.0	10 35.7	10 37.0	5 22.7	29 31.2
소음	3 18.8	4 14.3	7 25.9	5 22.7	19 20.4
갯수	4 25.0	3 10.7	3 11.1	4 18.2	14 15.1
난방	5 31.3	4 14.3	4 14.8	2 9.1	15 16.1
냉방	-	1 3.6	-	2 9.1	3 3.2
기타	-	2 7.1	-	1 4.5	3 3.2
계	16 100.0	28 100.0	27 100.0	22 100.0	93 100.0

무응답 제외

표 6. 연령별 거실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연령 불편사항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노후시설	4 26.7	7 25.0	5 27.8	2 15.4	18 24.3
규모	5 33.3	11 39.3	6 33.3	5 38.5	27 36.5
소음	3 20.0	4 14.3	3 16.7	-	10 13.5
갯수	-	-	1 5.6	1 7.7	2 2.7
난방	3 20.0	4 14.3	3 16.7	5 38.5	15 20.3
냉방	-	1 3.6	-	-	1 1.4
기타	-	1 3.6	-	-	1 1.4
전체	15 100.0	28 100.0	18 100.0	13 100.0	74 100.0

무응답 제외

모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부엌과 욕실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65-69세는 부엌에 대하여 규모37.5%, 노후시설 25.0%, 난방 25.0%를 불편하다고 지적하였고, 70-74세는 규모 37.0%, 노후시설 25.9%, 75-79세는 노후시설 50.0%규모 18.8%를, 80세 이상은 노후시설 61.5%, 규모 23.1%를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부엌공간의 노후시설에 대한 지적이 3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규모에 대한 지적이 30.6%로 나타났다.<표 7> 특히 부엌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조리행위 및 그와 관련된 기구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설비는 노후화되고, 최신 설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엌의 노후시설에

표 7. 연령별 부엌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연령 불편사항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노후시설	4 25.0	7 25.9	8 50.0	8 61.5	27 37.5
규모	6 37.5	10 37.0	3 18.8	3 23.1	22 30.6
소음	1 6.3	4 14.8	-	-	5 6.9
갯수	-	1 3.7	-	1 7.7	2 2.8
난방	4 25.0	2 7.4	3 18.8	1 7.7	10 13.9
냉방	1 6.3	1 3.7	-	-	2 2.8
기타	-	2 7.4	2 12.5	-	4 5.6
계	16 100.0	27 100.0	16 100.0	13 100.0	72 100.0

무응답 제외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현 주택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욕실에 대하여 65-69세는 욕실의 규모를 32.4%, 난방을 17.6%, 노후시설을 17.6%의 순으로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70-74세는 규모 30.4%, 난방 17.6%, 노후시설 17.6%의 순으로 불편하다고 지적하였고, 75-79세는 규모 30.4%, 노후시설 26.1%를, 80세 이상은 노후시설 42.1%, 욕실의 개수 26.3%의 순으로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 욕실규모 26.9%와 노후시설 24.7%를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표 8> 욕실은 부엌과 마찬가지로 기본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설비가 노후화되고,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의 신제품들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욕실설비의 노후가 많이 지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이 현

표 8. 연령별 욕실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연령 불편사항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노후시설	3 17.6	6 17.6	6 26.1	8 42.1	23 24.7
규모	5 29.4	11 32.4	7 30.4	2 10.5	25 26.9
소음	-	3 8.8	-	2 10.5	5 5.4
갯수	2 11.8	3 8.8	4 17.4	5 26.3	14 15.1
난방	4 23.5	6 17.6	4 17.4	-	14 15.1
냉방	1 5.9	1 2.9	-	1 5.3	3 3.2
기타	2 11.8	4 11.8	2 8.7	1 5.3	9 9.7
계	17 100.0	34 100.0	23 100.0	19 100.0	93 100.0

무응답 제외

주택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과 거실에서 규모이고, 부엌과 욕실에서 노후화된 시설로 나타났다.

VI. 주거유형별 각 실의 불편사항

조사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유형을 보면, 아파트 361(61.9%)와 단독주택 171(29.3%), 다세대주택 42(7.2%), 전원주택 6(1.0%), 기타 3(0.5%)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불편한 것이 있는지를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30.5%, 단독주택 38.6%, 다세대 주택 26.2%, 전원주택 50.0%, 기타 66.7%로 나타났다<표 9>. 다세대 주택과 전원주택, 기타의 거주자수 및 불편하다고 한 응답의 수가 매우 적어서, 이후 주거유형별 불편사항에 대한 분석에서 해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분석·정리하였다.

표 9. 주거유형별 불편하다는 반응 단위: 빈도, %

주거유형	총계 (N=583)	아파트 (N=361)	단독주택 (N=171)	다세대주택 (연립,빌라) (N=42)	전원주택 (N=6)	기타 (N=3)
불편함	192 32.9	110 30.5	66 38.6	11 26.2	3 50.0	2 66.7

무응답 제외

1. 방과 거실

주거유형별 각 실에 대한 불편사항을 살펴본 결과,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에서 아파트 거주자는 방에 대하여 규모 36.7%, 소음 18.4%를, 단독주택 거주자는 소음 25.6%, 개수 23.1%의 순으로 불편하다고 하였다.<표 10> 아파트는 평면구성상 실외공

표 10. 주거유형별 방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주거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계
노후시설	6 12.2	4 10.3	10 10.8
규모	18 36.7	8 20.5	29 31.2
소음	9 18.4	10 25.6	19 20.4
개수	5 10.2	9 23.1	14 15.1
난방	7 14.3	6 15.4	15 16.1
냉방	2 4.1	1 2.6	3 3.2
기타	2 4.1	1 2.6	3 3.2
계	49 100.0	39 100.0	93 100.0

무응답 제외

간이 없이 벽으로 한정된 느낌을 주는 실내 특히 방에서 휴식 및 취침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의 규모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특히 음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실의 규모에 대하여,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에서 아파트 거주자의 45.7%가, 거실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에서 아파트 거주자의 21.7%가 불편하다고 반응하였다.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는 거실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30.8%가, 거실난방에 대하여 23.1%가 불편하다고 하였다<표 11>.

표 11. 주거유형별 거실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주거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계
노후시설	10 21.7	8 30.8	18 24.3
규모	21 45.7	5 19.2	27 36.5
소음	5 10.9	5 19.2	10 13.5
개수	1 2.2	1 3.8	2 2.7
난방	8 17.4	6 23.1	15 20.3
냉방	1 2.2	-	1 1.4
기타	-	1 3.8	1 1.4
계	46 100.0	26 100.0	74 100.0

무응답 제외

특히 불편한 사항으로 아파트 거주자는 거실의 규모를 많이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소형 아파트에서 가족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 아파트의 평면특성상 실외공간없이 실내공간만으로 모든 행위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거실의 규모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아파트와 달리 가족들의 단란행위를 위하여 실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규모에 대한 불만이 아파트 거주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또 단독주택 거실의 노후시설과 난방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거실의 노후화된 시설을 많이 지적한 것을 보면, 단독주택 거실에 대한 리모델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난방상태를 지적한 것으로 볼 때 단열처리 및 개구부의 기밀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엌과 욕실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아

파트 거주자<표 12>의 37.8%는 부엌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지적하였고,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아파트 거주자 중 35.1%는 부엌의 규모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하였다.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의 38.7%는 부엌의 노후시설을,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25.8%는 부엌의 규모를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부엌의 노후시설과 규모를 불편한 사항으로 많이 지적하였는데, 주택신축과 함께 설치된 부엌설비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노후되어 조리 등의 작업효율을 낮추게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표 12. 주거유형별 부엌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주거유형 불편사항	아파트	단독주택	계
노후시설	14 37.8	12 38.7	27 37.5
규모	13 35.1	8 25.8	22 30.6
소음	3 8.1	2 6.5	5 6.9
갯수	-	1 3.2	2 2.8
난방	5 13.5	4 12.9	10 13.9
냉방	1 2.7	1 3.2	2 2.8
기타	1 2.7	3 9.7	4 5.6
계	37 100.0	31 100.0	72 100.0

무응답 제외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아파트 거주자의 30.6%는 욕실의 규모에 대하여 불편하다고 지적하였고, 욕실의 노후시설과 난방에 대하여 각각 20.4%로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의 35.1%는 욕실의 노후시설을, 24.3%는 욕실의 규모를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표 13>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욕실의 규모에 대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는 욕실의 시설에 대하여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중소형 아파트의 평면특성상 욕실의 규모가 아파트 주호규모나 거주자 특성에 대한 배려없이 보급된 거의 일정한 규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단독주택 거주자는 규모보다 노후화된 시설을 더 많이 지적하였다.

주거유형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과 거실의 규모이고, 부엌의 노후화된 시설, 욕실의 규모로 나타났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의 소음과 거실·부엌·욕실의 노후화된 시설로 나타났다.

표 13. 주거유형별 욕실에 대한 불편 단위: 빈도, %

주거유형 불편사항	아파트	단독주택	계
노후시설	10 20.4	13 35.1	23 24.7
규모	15 30.6	9 24.3	25 26.9
소음	2 4.1	3 8.1	5 5.4
갯수	7 14.3	4 10.8	14 15.1
난방	10 20.4	3 8.1	14 15.1
냉방	1 2.0	1 2.7	3 3.2
기타	4 8.2	4 10.8	9 9.7
계	49 100.0	37 100.0	93 100.0

무응답 제외

VII. 요약 및 결론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노인들은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노인기를 보내고 싶어하므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 주택내 각 실의 규모나 설비 등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본 조사대상 노인의 학력은 초졸 이상이 71.2%이고, 전직으로 전문기술직·일반사무직·행정관리직이 40.5%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의 교육 및 전직의 수준이 낮지 않았다. 그러나 50만원 미만의 월평균 수입을 가진 조사대상자가 75.1%이고, 자녀가 주된 수입원인 경우 62.8%로 나타나서 본 조사대상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령이 낮은 노인들은 연령이 높은 노인들보다 수입원 중 저축·해약금 및 연금의 비율이 큰 것으로 판단하건대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해온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조사 대상자 중 32.7%가 현 주택에 대하여 불편한 것이 있다고 응답하여 주어진 환경을 무조건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현 주택 내 불편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이 현 주택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과 거실의 규모, 부엌과 욕실의 노후화된 시설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현 주택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중 74세 이하의 방에 대하여 규모와 난방을, 75세 이상은 규모와 소음문제를 지적하였고, 거실에 대하여 79세 이하의 규모와 노후시설을, 80세 이상은 규모와 난방, 노

후시설을 지적하였다. 현 주택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은 부엌의 노후시설과 규모를, 욕실의 규모, 노후시설을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부엌과 욕실은 기본적인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설비가 노후화되며,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의 신제품들이 개발되고 보급되므로 본 조사대상자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물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부엌과 욕실설비의 노후화를 지적하였다고 사료된다.

셋째, 조사결과를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의 규모, 거실의 규모, 욕실의 규모이고, 부엌의 노후화된 시설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의 소음과 거실의 노후화된 시설, 부엌의 노후화된 시설, 욕실의 노후화된 시설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실내 특히 방이나 거실에서 보내고, 소장하고 있는 물품들을 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방 규모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세대 동거가구인 경우 노인들은 아파트 평면에서 2번째나 3번째로 큰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소형 아파트에서 그 크기의 방은 학생 자녀를 위한 1인용 작은 책상과 침대가 들어가면 여유가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오랜 시간 주택 안에서 거주하고, 많은 물품을 소장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거주하는 방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 거실은 1인 이상의 가구원이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므로 수용인원의 변화와 행위내용에 따라 공간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평면계획 초기에 방과 거실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조절가능한 가변형 벽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소형 아파트의 욕실은 대개의 경우 필요한 시설과 최소한의 동작을 위한 공간이 확보된 평면이다. 노화에 따라 동작이 둔해져서 일반성인보다 보다 넓은 공간과 설비가 필요해지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공간은 불안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기 쉽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욕실 디자인에 보다 넓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화단계에 따라 변경 혹은 교체가능한 부엌설비나 욕실설비에 대한 배려가 주택건축의 초기단계에서 구조 및 시공계획에 고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강혜원·김인희(2002), 청년층의 3세대 동거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1호, pp.73-82
2. 고경환·장영식(2004), 한일사회복지지출 추계(2001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대년·권오정(2005), 노인요양시설 입주의사가 있는 한국 노후 중년층의 전망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1호, pp.84-96
4. 김석준·이득구(2005),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 및 배치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5호 pp.69-76
5. 김태일(1998), 주택내에서의 고령자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pp.3-12
6. 김창국·김수인(1993), 도시노인의 여가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 6호 pp.31-37
7. 김행신·이영호(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8호, pp.59-68
8. 김혜정(1995), 노인건축환경의 색채계획을 위한 우리나라 노년층의 색채지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2호, pp.19-33
9. 노지화(2005), 일본노인보건시설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3호, pp.31-38
10. 문창호(2004), 최근 일본노인주거시설의 건축적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6호, pp.119-126
11. 박영철·박재승(2001), 노인시설여가공간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1호, pp.43-46
12. 백문현(2001), 노인정 이용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신경주·최문선·장상욱(2005), 평생주택개념 도입을 위한 중·노년층 거주주택의 실태와 만족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2권2호, pp.81-92
14. 신경주·황은주(1996), 실비노인용양시설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8호, pp.83-93
15. 윤영선·변혜령(2005), 한국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환경디자인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8호, pp.69-76
16. 이동숙·윤충열(2003),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3대 동거가구의 공간사용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5호, pp.31-38
17. 이영심·이상해(2002), 호주 재택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권 1호, pp.44-52
18. 이지숙(2004), 대전시 거주노인이 선호하는 거주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20권 6호
19. 이진혁·임창복(2005), 도시형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동향과 건축 계획적 제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3호, pp.11-22
20. 장영희·이문보(2001), 노인의 주거내 일상생활행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9호, pp.83-92
21. 정준수·임환준·이현희·박용환(2003), 시각의 노화를 고려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7호, pp.33-40
22. 최명규(2000),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9호 pp.29-38
23. 최정신(200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권 12호, pp.129-138
24. 통계청(2004), 2004고령자 통계.
25. 홍원화·원안나(200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동적시 실내 물리적 온열환경 특징 및 노인의 주관적 반응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12호, pp.161-168
26. 황영이(1999), 노인을 위한 일본주거환경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接受: 2005. 6. 14)